

쉽게 읽을 '계율서'가 없다

번역서 50여권에 비해 해설서는 턱없이 부족
 '깨달음 지상주의' '지계교육 부재' 등이 원인

직장인 최경식(38·서울 중구 필동)씨는 얼마 전 5계를 받았다. 5계를 받고 새롭게 발심한 최씨는 계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서점에 나가 계율 관련 책을 살피기 시작했다. 아무리 찾아도 재가불자들을 위한 계율해설서는 눈에 띄지 않았다. 최씨의 이 같은 경험은 본지가 조사한 불교계 출판사의 계율서 출간 현황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



직장인 최경식(38·서울 중구 필동)씨는 얼마 전 5계를 받았다. 5계를 받고 새롭게 발심한 최씨는 계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서점에 나가 계율 관련 책을 살피기 시작했다. 아무리 찾아도 재가불자들을 위한 계율해설서는 눈에 띄지 않았다. 최씨의 이 같은 경험은 본지가 조사한 불교계 출판사의 계율서 출간 현황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

공급도 없는 셈이 됐다. 한국불교출판문화협회 윤창화 부회장(민족사 대표)은 "한국불교의 계율전통이 거의 없어진 현실에서 대중적인 계율서가 출간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사와 불교 출판사 관계자들은 대중적인 계율서 발간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재가불자용 '계율지침서' 발간 △계율지도 윤사(법사) 양성 △한글 계율용어 해설집 관련 △계율 관련 법회 및 교육 상설화 △출판 위상 강화 등이 선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인사 출판장 해능 스님은 "출판이 절대화·신비화해 인식하는 계율관이 흩어졌다. 재가자들이 일상에서 계율 지키는 데 갖춰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전 곳곳에 흩어진 계율 관련 내용을 정리·요약해 일종의 '지계세행(細行)'인 계율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해능 스님은 그간 개별적으로 활동했던 계율 관련 종단 기구의 통합운영을 강조했다. 총무원 계단위원회, 교육원 불학연구소, 포교원 신도교육위원회 등이 재가자를 위한 계율지침서 발간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화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계율수행대회'를 회향하는 보살계 수계법회가 5000여명의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10월 9일 통일약사대를 앞에서 봉행됐다. 동화사=고영배 기자

"지계로 보살의 삶 살겠습니다" 동화사 계율수행법회, 5천여명 보살계수계로 회향

대구 팔공산 동화사(주 지 지성)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공동주최한 계율수행대법회가 10월 9일 보살계수계법회를 끝으로 회향했다. 보살계 수계법회는 전제사 지관(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갈마사 혜정(법주사 회주), 교수사 종진(해인사 율주) 스님을 3사로, 지하(前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도영(조계종 포교원장) 지성(동화사 주지) 수성(동화

사 부주지) 흥교(대각사 주지) 문인(봉정사 주지) 지우(관음사 주지) 스님을 7중사로 동화사 통일약사대를 앞에서 봉행했다. 이날 수계대법회에서는 지난 8월 6일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거행된 동화사 계율수계대법회의 참석자 5000여명이 계를 받았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수계는 참자기를 찾고, 불교를 넘어 일반사회에 윤리도덕의식을 찾는 길"이라며, "수계대중은 계를 내담과 같이 여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
 꽃을 드니 미소 짓다
 -두터제일 기법
 현봉스님 10월 19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선원장, 禪의 원류를 찾다 8면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 ... 마감 12월 17일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 주제: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인위(A4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2005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2006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부다뉴스
- 문의전화: (02)2004-8239 ■ 이메일 접수: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회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템플스테이 '차원' 달라졌다

심볼마크 선정 '개선전략 수립연구' 보고서 발간

지난해 상설운영으로 전환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템플스테이가 새로운 심볼마크를 선정하고 전면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에 나섰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 템플스테이사무국의 새얼굴이 될 심볼마크는 은은한 먹빛을 바탕으로 연꽃, 가람, 물고기 등이 어우러져 환경 친화적인 느낌을 준다. 또 선진국 수준의 템플스테이 환경조성을 위해 1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도 수립 발표했다. 템플스테이사무국은 10월 12일 템플스테이의 향후 10년 발전방안을 담은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사찰수용태세 개선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템플스테이 수용시설의 부족 및 안내문의 용어 비표준화, 통합적 예약 서비스체계 부재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결하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운영시설을 100여개로 늘릴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템플스테이 사업단은 정부의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2천383억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세계인이 한국불교를 '클릭' 영문 포탈 부다피아 emg.buddhapia.com

'할' 해야 할 일을 지키는것을 '계'라합니다

우리에 가정에서도 필요한것이죠

그림·조태호

지관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자운대율사계주원명사리탑비 제막식' 및 '근대한국불교술품진작과 자운대율사 특별심포지움'

귀의삼보하옵고, 淸明의 계절, 율문유품과 대중지도, 수계의례복원 등 계단정비작업을 통해 한국불교 고단중흥의 초석을 다지신 자운대율사의 사상과 그 업적을 조명하는 계주원명사리탑비 제막식 및 근대한국불교술품진작과 자운대율사 특별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 일시: 2005년 10월 15일(토) 10:00~19:00
-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경국사

慈雲門徒會 · 伽山佛敎文化硏究院 會主 伽山智冠

慈雲大律師戒珠圓明舍利塔碑 제막식	담비도량
10:00-10:30 제막식	
近代韓國佛敎律風振作과 慈雲大律師 심포지움	
11:00-12:00 제1부 '한국불교계법승과 자운대율사'	문도대표 지관스님 보광스님
심규의례 인사말 기조법문 '한국불교계법의 자주적 존중' 자운대율사의 행장 발표	
12:00-13:00 점심공양	
13:00-16:30 제2부 '불교중흥과 자운대율사'	종진스님 혜승스님 법혜스님 무관스님 태원스님
발표 1 한국불교의 참법수행과 자운대율사 발표 2 천화율원감로계단심지와 대중교화 발표 3 자운대율사의 화합승가와 역경불사의 원형 발표 4 한국불교조계종단과 자운대율사 발표 5 계정검수와 대중교화	
17:00-17:40 제3부 '한국불교계단에 있어서 이부승계 복원의의'	이자람님
발표 6 초기불교의 계단심지와 이부승계	
18:00-19:00 대중중합토론	진행 박병기님 사용서원

승종 경국사 도량 내 자운대율사계주원명사리탑비 전경